**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크리에이티브 아시아’ 개최!**

**아시아 영화인과 세계적 거장들 모두 한자리에**

**기예르모 델 토로, 연상호, 매기 강 등 글로벌 크리에이터와 차세대 영화인들의 특별 만남**

**지난해 이어 한층 확대된 규모로 개최…국내외 신인·베테랑 크리에이터가 함께 창작 생태계 발전 논의**

****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내외 신진 영화인, 예비 크리에이터, 제작 전문가들을 위한 넷플릭스 ‘크리에이티브 아시아(Creative Asia)’를 개최한다.

올해 2회를 맞은 넷플릭스 크리에이티브 아시아는 세계적인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스터 클래스와 특별 대담 세션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보다 한층 확대된 규모로 진행하는 올해 크리에이티브 아시아 프로그램은 영화제를 찾은 신인 영화인들에게 세계 유수의 어워드 수상 경력을 지닌 베테랑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9월 20일(토) 동서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이성규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인도 제외) 프로덕션 부문 시니어 디렉터가 진행하는 ‘APAC 프로덕션 패널 세션’으로 시작해, 오후에는 영화계의 세계적 거장들과 제작 전문가들이 관객들과 만나는 대담이 이어진다.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지옥>, <계시록>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의 특별 대담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로 등극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 넷플릭스 일본 영화 <이쿠사가미: 전쟁의 신>의 유이 미야모리 미술 감독, 중화권 엔터테인먼트계의 거장이자 넷플릭스 대만 시리즈 <회혼계>를 연출한 찬정다오 감독이 무대에 올라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창작 인사이트를 전한다.

넷플릭스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및 연출 집중 트레이닝 세션’이 열린다. 이 세션은 문화체육관광부·콘진원·넷플릭스가 한국 창작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세대 창작자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넷플릭스 프로덕션 아카데미’의 일환이다. 세션에는 미국 할리우드 베테랑 크리에이터 조 퍼라키오와 마이클 레만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이들은 한국 창작자들에게 글로벌 업계의 제작 관행을 소개하고, 드라마 제작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해하며 기획·집필 등 다양한 기술을 글로벌 시각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크리에이티브 아시아의 세부 일정은 추후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www.bif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 9월 17일(수) - 9월 26일(금)

▶ 제20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9월 20일(토) - 9월 23일(화)